

최선을 다하자 I

강길웅 신부
광주대교구

자연을 보면 산이나 강, 계곡이나 바위, 그리고 나무나 풀들도 모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또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결코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또 해야 할 일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리와 역할이 있으며,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그 자리와 역할이 각각 있습니다. 상사는 상사로서 부하는 부하로서의 자리와 역할이 있으며 회장이나 사목회 임원, 그리고 단장이나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며,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느님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주어진 역할이 힘들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일을 게을리한다면 화를 낸다면 그는 비겁한 사람이고 또 벌 받을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탈렌트의 비유 : 마태25,14-30)

마태오복음 25,14-30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합니다. 먼저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하고 열 탈렌트를 드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하면서 열 탈렌트를 다 줍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하고 네 탈렌트를 드리자 주인이 그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하면서 네 탈렌트를 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심을 알기에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하고 한 탈렌트를 도로 드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그 종을 꾸짖고 나무라면서 다른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서 앞의 두 종은 돈을 불려서 큰 상을 받았지만, 마지막 종은 돈을 불리지 않아 큰 벌을 받습니다. 왜 한 탈렌트를 받았던 종은

돈을 키우거나 불리지 않았을까요?

한 탈렌트는 6천 명의 하루 품삯이니 큰돈입니다.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만 쳐도 3억이나 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친구는 돈을 땅에다 묻고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을까요?

다른 종들에게는 다섯 탈렌트, 두 탈렌트를 줬는데 자기에게는 한 탈렌트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꼽고 더러워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일 대신 불평만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찌면 한 탈렌트도 안 되는 팔자와 운명이 주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하고 비교해보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의 철인 에픽테토스(55-135)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였는데, 주인의 박해로 다리를 절었으나, 나중에는 주인을 잘 만나 공부를 해서 큰 철학자가 된 분입니다.

“인간은 작가의 의도대로 연극 속에 등장하는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난뱅이, 불구자, 지도자, 또는 평범한 시민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맡겨진 배역에 온 힘을 다해 연기하는 것일 뿐, 배역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자식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의 키나 용모, 능력이나 재주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맡겨진 것이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받아 들여야 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말하기를 “현

자는 맡겨진 배역을 올바르게 알고 최선을 다해 연기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TV가 출현했던 초기에 “여로”라는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장옥제가 바보로 나오는데 그 배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바보가 인기를 독점합니다. 아주 천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영국의 뉴먼 추기경님(1901-1990 : 45세 개종. 47세 가톨릭 사제 서품. 78세 추기경 서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청소부라면 런던에서 제일가는 청소부가 되겠다.” 비록 길바닥에서 천한 노동을 하는 신세지만, 월급이 많다, 적다 따지지 않으며, 그리고 일이 많다, 적다 불평하지 않고 청소부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깨끗하게 일하는 청소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며느리라면 최고의 며느리가 되어야 하며, 내가 시어머니라면 최고의 시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시어머니가 꼭 좋아야 최고의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잘해야 나도 잘한다, 이걸 다른 차원입니다.

장사로 친다면,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잘되고 있다면 그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지 수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는데도 장사를 잘하고 있다면 그는 수완이 탁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잘해서 남편이 잘하고 있다면 좋은 일이긴 한데, 남편이 탁월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늘 힘들게 하는데도 남편이 잘하고 있다면 그는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뉴먼 추기경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맞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혹시 병이 나더라도 병으로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고, 난처한 처지에 처할 때는 그 난처한 처지로서 그분을 섬길 수 있으며 슬플 때는 슬픔으로 역시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그분을 멋지게 섬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오래전에 굴지의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아주 특출한 사원 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마친 회장은 내심으로는 굉장히 기쁘면서도 내색은 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당번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당번이 있어서 “몇 층 왔습니다. 내리십시오.” 하고 탑승자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몰라준다면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갔고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회장이 엘리베이터 당번을 불러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한 뒤에, 그동안 일하면서 회사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신입사원이 과별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제시했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회장이 정곡을 찌른 그의 지적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일한 적도 없고 공장에서 일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문을 열고

닫는 일만 했는데 어떻게 회사 전체의 일을 속속들이 꿰면서 알았을까요? 맞습니다.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안에서 그들이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해서 분석하면서 사원들의 심리와 회사 분위기를 다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회장의 큰 신임을 받게 됩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약삭빠르게 처신하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편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좀 손해가 나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벨라렛다 성녀는 본래 어렸을 때부터 기쁘지가 안 좋아 천식으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병상에서도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숨도 잘 쉬지 못했는데, 침상을 지키던 수녀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벨라렛다가 그랬습니다. “수녀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식으로 고통받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은 별 재주가 없었습니다. 성모님 발현을 목격할 때만 해도 나이가 14살이었는데 그때까지 읽을 줄도 몰랐고 쓸 줄도 몰랐습니다. 수녀원에서 공부하는 늘 꼴찌였습니다. 다만 재주가 있다면, 주어진 고통을 잘 참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임무요 과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벨라렛다가 몸 여러 곳이 안 좋은 것을 알고는 상상 수녀님들이 그랬습니다. “루르드로 가자. 거기에 가면 네가 파놓은 기적의 물이 있잖느냐? 성모님께서 우선적으로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때 벨라렛다가 말했습니다.

다. “그 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이 세상의 행복은 약속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무시 받고 천대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는 그 걷는 길이 굉장히 고풍합니다. 그야말로 외적인 것은 모두 벗겨버리십니다. 이를테면 건강이나 재물, 그리고 웃음까지 죄다 제거하십니다.

어찌 보면 잔인하시다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참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아서 안 된다는 것이며, 또 여기서의 고통도 사실은 참 불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많으며 또 가짜 같은 진짜가 많은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으로만 은혜라고 하며 “알렐루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걸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산다는 것은 그분에게 너무 송구스럽기 때문입니다.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한다면, 갑순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으며, 몸도 아깝지 않습니다. 갑순이를 위해서 무슨 희생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갑순이를 이용해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는 가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이용해 내 뜻만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뜻을 따르기 위해 맘에 안 들어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농담하자면, 어떤 자매가 학교 다닐 때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시집갈 때도 잘 골라서 갔는데, 남편이 무능하고 술꾼입니다. 평생 남편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호박 같던 친구들은 시집을 잘 가서는 남편한테 호령하면서 아주 명명거리면서 삽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 있던 여자는 힘들게 살고, 능력이 없던 여자들은 편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농담이지만 그러나 농담만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여자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여자가 수십억 명이 있지만, 저 남자를 구제할 여자는 너밖에 없다고 하느님께서 스카우트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나냐? 그건 일종의 운명이고, 또 하느님께서 주신 배역입니다. 편하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힘들다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참 행복은 하느님의 뜻 안에, 그리고 운명을 짊어질 때 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자주 넘어지며 또 실패합니다. 세상이, 인간사에는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겁내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시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빵의 기적(마태 14,13-21 참조)에서 보면, 예수

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군중을 외딴곳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돈을 가지고도 빵을 구할 수 없도록 이미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의 부분을 떼고 나면 제자들의 반응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밖에 말 못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 가져오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가져다드리자 군중을 풀밭에 앉히시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빵 두 개로 너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떼신 다음에 제자들보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장정만도 오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는데,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때 빵 다섯 개 가지고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제자들의 심리를 결핍(缺乏)의 심리라 하

고, 빵 다섯 개만으로도 너무 충분하다는 예수님의 심리를 풍요(豊饒)의 심리라 합니다.

믿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리를 배워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고 하면 됩니다. 안 될 일도 됩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 같이 말도 잘하고 논리도 참 정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빵의 기적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없다고, 소용없다고 투덜거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이게 해답이고 이게 열쇠입니다.

힘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불평부터 나오고 화만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그 책임은 이제 주님 몫이 되니까 불평도 안 하고 화도 안 냅니다.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다행, 안 되면 천만다행.”

바라던 일이 잘 안 됐는데 왜 천만다행일까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된 것에는 하느님의 다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라면 잘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며 또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에는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